



## “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” 권익위, 유가족없는 현충원 용사 묘 참배

- 호국보훈의 달 맞아 무연고 묘 참배하고 묘역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 실시
- 현충일 당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제69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(이하 ‘현충원’)에서 무연고 묘를 참배·봉사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고충상담을 실시한다.

□ 현충일을 이틀 앞둔 오늘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현충탑 분향과 현충원 무연고 묘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.

아울러 지난 2014년 위원회의 권고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명예 진급한 고(故)변화수 소령\*의 묘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.

\* 1977년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당시 대위 신분으로 헬기 연습 중 사고로 순직. 당시 군은 고인 과실에 따른 사고로 봐 명예진급을 시키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권고로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추서

□ 이어 현충일 당일에는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국방·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.

그간 국민권익위는 매년 현충일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를 운영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심사나 각종 보훈관련 지

원 등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해 왔으며, 이를 고충 민원으로 접수·해결하는 등 보훈 가족들의 민원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.

- 한편, 지난 5월 21일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, 지자체 보훈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.

이 자리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논의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.

-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가족 없는 무연고 묘 참배를 통해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, 찾아가는 국방보훈분야 상담을 통해 보훈가족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.”라며,

“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

담당 부서	국방보훈민원과	책임자	과 장	윤영국 (044-200-7361)
		담당자	서기관	김미숙 (044-200-7367)

## 붙임 :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

### 국방·군사·보훈 관련 주요 고충민원 유형

- 국 방 : 군사시설 토지 수용·환매, 사유지 무단점유 등 개인 재산권 피해, 군사보호시설 해제, 징병검사 이의 및 병역처분 변경 등
- 군 사 : 군인 사망·사고, 장병 구타·가혹 행위, 병적 및 서훈, 현역 및 전역 장병 복지 의료 지원 등
- 보 훈 : 국가유공자 등록,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인정, 국립묘지 안장·이장, 생활조정수당 지급, 대부지원 등

### 보훈가족 고충민원 상담분야

국가유공자 심사·등록·취소	기타 보훈대상자 등록	보훈혜택
공무관련성	참전유공자	수급권 변경, 제대군인 지원
신체검사·상이정도 판정	고엽제 후유(의)증환자	보훈선양·예우, 보훈급여금 결정
심사·보상종류 결정	독립유공자	교육·취업보호 및 지원
적용배제	특수임무수행자	의료보호, 양로·양육보호
요건·보상심사	제대군인	보훈복지사업, 대부 및 주택, 생계지원
지정취소	재향군인회	국립묘지안장·이장·심의